육아정책연구
제13권 제1호(2019. 6.) 101~121 https://doi.org/10.5718/kcep.2019.13.1.101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어머니의 취업, 가정환경,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중심으로

이예진[1] 전은옥[2]

요 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 가정의 물리적·기능적 환경, 그리고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를 AMOS 21.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모형 분석을 실시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직접적·간접적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가정의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의 기능적 환경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학교적응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가정의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한 맞춤형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학교적응, 모 취업, 가정환경, 집행기능 곤란

Ⅰ. 서론

초등학교 시기는 아동에게 있어 사회로 전환하는 첫 장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한 사회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즉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기, 성인기에 대한 적응에 바탕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성민선·이

1) 가톨릭대학교 시간강사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간강사

상오·정무성·정은, 1998; Bagwell, Newcomb, & Bukowsi, 1998). 학령기 이후 아동은 학교에서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물리적·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혼란, 또래, 교사 등의 사회생활 영역 확대에 따른 적응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Stipek et al., 1998). 학교는 아동에게 단체생활의 규칙, 성취감, 협동심, 바람직한 자아개념, 사회관, 가치관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Elliot, 1972). 또한 지적 역량 발달과 유능감, 소속감을 경험하게 하고, 부모 이외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Vieno, Santinello, Pastore, et al., 2007). 따라서 학교는 경험을 제공받는 장소이자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도전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전반적인 학교생활 영역에서 성공을 이루는 정도를 학교적응이라 한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학교적응 경험은 아동이 학교환경과 상호작용하여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수업과 규칙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며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류윤석, 1996), 학교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와 변화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고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적극적인 창조과정이다(차유림, 2000). 학교에 잘 적응하는 아동은 학교에 대해 긍정적 감정, 태도, 동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만한 대인관계와 높은 학업성취를 나타낸다(김수정·곽금주, 2010; 최옥희·김용미·김영호, 2009). 이는 초등학교에서의 적응 수준이 이후 중학교 시기의 적응을 예측하며(정현희, 2003), 아동의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은 물론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Glenwick & Jason, 1993).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부적절한 교우관계 형성은 또래 괴롭힘, 또래 폭력과 같은 현상의 원인이 되므로 학령 초기의 적응은 전반적인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Brody, Murrym, Kim, et al., 2002; Ladd & Troop-Gordon, 2003).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공격성, 과잉행동, 우울, 위축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며(최진희, 2000). 이로 인하여 교우관계의 어려움, 학교중도탈락, 비행 등의 위험에 직면한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7). 이러한 위험은 아동의 중·고등학교 시기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부적응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Brody et al, 2002; Ladd & Troop-Gordon, 2003). 그러므로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관심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1학년은 사회적 생활공간이 확장되는 시기이다. 유아교육기관을 벗어나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규범과 통제를 경험하고, 적응이라는 과업을 경험한다(고정곤·최태식, 2003). 또한 독립적 대처와 자기조절이 급격히 발달하는 전이 시기로 타인에게 의존하

며 정서조절을 하던 이전 시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적인 전략에 의존하며 정서를 조절하는 시기이다(Losoya, Eisenberg, & Fabes, 1998). 아동은 또래,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장, 자기조절, 협력 행동을 보임으로서 관계를 이끌어 가기 위한 경험과 유능성을 나타낸다. 반면 필요한 경험과 유능성이 결여될 때 학교적응의 학문적,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한다(Stright, Gallagher, & Kelley, 2008). 이렇듯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은 이 시기에 학교생활을 잘하면 이후의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모, 교사, 아동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김민진, 2008; 지성애·정대현,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아동 개인의 특성과 아동이 속한 가정의 특성이 주목 받고 있다. 일차적으로 가정은 아동의 사회화 및 학습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이다. 즉, 가정환경은 직·간접적으로 아동이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김수정·곽금주, 2010; 전은옥·최나야, 2015), 학업적 능력에 대해 학교에서 직접 학업 수행을 지도하는 교사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소영·황혜정, 2013; Williamson, 2003).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은 크게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 기능적 환경과 안정적 환경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정에서 아동과 부모가 긍정적,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며,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다(이정윤·이경아, 2004; 차유림, 2000; 최옥희·김용미, 2008; Tesser, Forehand, Brody, & Long, 1989). 이는 가정에서 학습 분위기 조성, 토론이나 대화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지지는 물론 자녀에게 학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Verna & Campbell, 2000). 반면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거부적,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혜진, 2003). 따라서 이러한 가정의 기능적, 물리적 환경은 학교적응과 관련된 아동의 개인적 역량에도 강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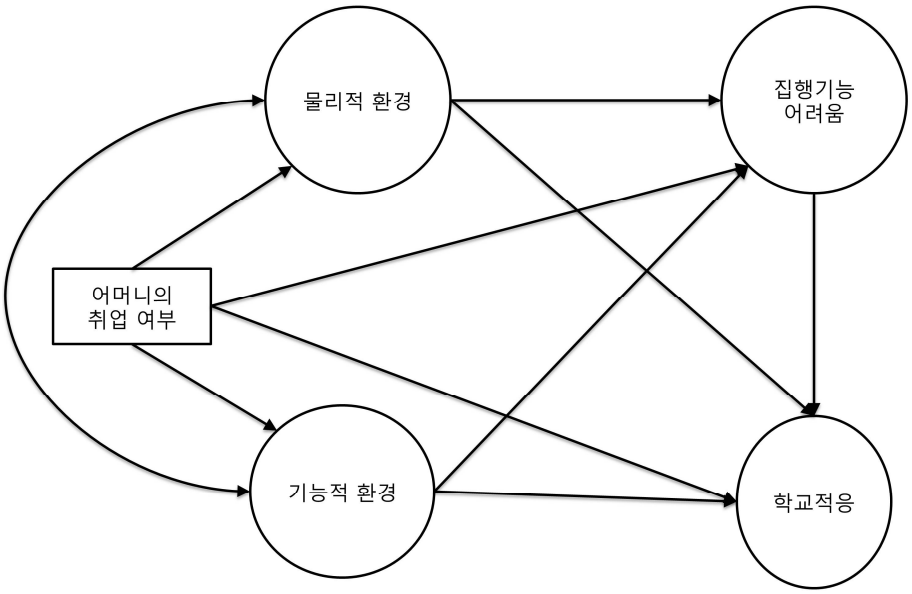
또한 아동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가정 요소로 주목 받는 한가지는 어머니의 취업이다(김혜란, 2006; 전하람·임혜정, 2016). 한국사회에서 어머니는 자녀의 교육적 지원 및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주 영향력자(김소윤·최성우, 2015)로 볼 때,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교육과 부적인 관계를 가질 경우(주동범, 2006) 취학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일과 가정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직업을 가질수록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거나(김혜란, 2006), 반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전하람·임혜정, 2016).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성이 없음(간호옥·박완재, 2005; 박인영·유조안, 2015; 정

윤미·장영애, 2009; 최옥희·김용미, 2008)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상반된 연구들을 볼 때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의 학교적응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가정의 기능적·물리적 요소들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개인적 요소로는 집행기능을 들 수 있다(송현주, 2011). 집행기능은 언어이해, 학습, 추론, 문제해결 등의 인지기능을 수행하고, 목적달성을 위해 현재의 반응이나 인지적 과정을 억제하는 인지적 조절능력으로(Barkley, 1997), 상호의존적으로 발달하고 인간의 정서나 인지적 능력 성장에 영향을 주는 상위인지적인 정신활동이다(Barkley & Lombroso, 2000). 특히 아동의 집행기능은 실제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으로 학업능력 및 학교적응에 중요한 역할 한다(송현주, 2011; Espy et al, 2004; Gatherocle, Brown, & Pickering, 2003). 또한 집행기능이 아동의 과잉행동과 주의집중력을 중재하여 학교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전숙영, 2018)에 따라 집행기능은 학교적응을 예측(Graziano, Reavis, Keane, et al., 2007)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집행기능이 미숙한 아동은 품행장애, 학습양식 차이, 주의와 행동에 어려움을 나타내며(Nigg, Hinshaw, Carte, et al., 1998; Pennington, 1997), 사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또래와의 관계에 문제(이정림·강영숙, 2012)를 나타내기 때문에 학교 부적응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집행기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학교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편적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이정윤·이경아, 2004; 한신애·문수백, 2011). 하지만 학교적응이 전환시기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에게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김수정·곽금주, 2012; 김민진, 2008; 지성애·정대현, 2006; 최옥희·김용미, 2008)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의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변인과 가정변인으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관련변인을 알아보는 연구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어머니의 보고를 통해 측정되었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어머니와 아동의 담임교사를 통해 측정된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Ⅱ.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 PSKC)의 8차년도(2015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층화다단계 표집으로 전국에서 추출한 2008년 출생 아동 2,150명에 대한 자료를 아동, 부모 및 담임 교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추적 조사하고 있다. 8차년도 자료는 패널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7월부터 12월에 조사가 진행되었다. 패널 조사의 특성 상 매 조사 시점에는 불참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8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전체 패널 가구는 1,598가구이다.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조사 패널에 대한 기초자료는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 (김은설 외, 2016)'에 상세히 제시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주요 변인들에 모두 응답한 930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 아동은 남아가 475명(51.1%), 여아가 455명(48.9%)으로, 첫째 및 외동이 425명(45.7%), 둘째가 403명(43.3%), 셋째 이상이 102명(10.9%)이며, 평균 월령 87.78

개월(*SD*=1.45)이다. 916명(98.5%)의 대다수 아동은 국공립 초등학교 1학년 학급에 재학 중이다. 연구대상 가구 중 830명(89.2%)은 부모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이며, 그 외 100명(10.8%)은 조부모 또는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461.21만원(*SD*=206.01)으로 미취업모 가구의 경우 평균 417.39만원(*SD*=192.62), 취업모 가구의 경우 평균 514.64만원(*SD*=209.39)이며, 월 평균 교육비용 지출은 27.53만원(*SD*=19.41)으로 미취업모 가구의 경우 평균 27.36만원(*SD*=19.51), 취업모 가구의 경우 평균 27.74만원(*SD*=19.30)이다.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고졸 이하가 286명(30.8%), 전문대 졸업이 282명(30.3%), 대졸 이상이 362명(38.9%)이며, 평균 연령은 37.89세(*SD*=3.67)이다. 어머니 중 미취업모는 511명(54.9%), 취업모는 419명(45.1%), 취업모의 근로 소득은 200만원 이하가 67.5%, 201~300만원 이하가 25.3%, 301~700만원 이하가 7.2%로 평균 178.45만원(*SD*=115.57)이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조사 설계에 따라 아동의 어머니에게는 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담임교사에게는 CAWI(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ing)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가.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 척도는 지성애와 정대현(2006)이 타당화한 '학교적응 척도(School Adjustment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생활 적응(11문항, 예: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학업수행 적응(11문항, 예: 수업시간에 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또래 적응(8문항, 예: 친구들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 오면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교사 적응(5문항, 예: 선생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의 4개 하위 영역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아동의 담임교사에 의해 평정되었다. 하위 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학교생활 적응 .96, 학업수행 적응 .94, 또래 적응 .95, 교사 적응 .84으로 나타났다.

나.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송현주(2014)가 타당화한 '집행기능 곤란(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creening Questionnaire)'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계획-조직화 곤란(11문항, 예: 어떤 활동이든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획해서 행동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행동통제 곤란(11문항, 예: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서통제 곤란(8문항, 예: 상황에 따라 기분 변화가 심하다), 부주의(10문항, 예: 해야 할 일을 잘 잊는다)의 4개 하위 영역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의 Likert식 3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아동의 담임교사에 의해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집행기능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는 계획-조직화 곤란 .94, 행동통제 곤란 .95, 정서통제 곤란 .95, 부주의 .95으로 나타났다.

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가구방문 조사 질문지에 있는 구조화 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 본인이 직접 응답한 어머니의 취업 상태는 '취업 중(41.6%)', '취업/학업 병행 중(3.4%)', '학업 중(0.4%)', '미취/학업 중(54.5%)'으로 분류하여 질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 4일 이상 근무하는 어머니를 취업 중으로 정의하여 '취업 중'과 '취업/학업 병행 중'을 '취업모(1)', '학업 중' 및 '미취/학업 중'을 '미취업모(0)'로 더미 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라. 가정의 물리적 환경

가정의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 내 환경구성에 대한 측면을 의미하며, Caldwell & Bradley(2003)의 아동용 가정환경자극검사(middle childhood home, MC-HOME)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C-HOME 중 학습 자료와 기회 제공(8문항, 아동의 학습을 지지하는 환경 조성 및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같은 학습에 대한 부모의 열의 등을 의미), 물리적 환경(8문항, 자택과 주변 환경이 안전하고 흥미로운지, 공간이 충분한지 등의 물리적 환경의 적절성을 의미)의 총 1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항목에 따라 '0점' 또는 '1점'의 이분형 점수로 측정되었으며, 어머니 면접과 조사원 관찰을 통해 평정되었다. 학습 자료와 기회 제공 및 물리적 환경은 문항별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환경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 가정의 기능적 환경

가정의 기능적 환경은 어머니와 자녀와의 상호작용 관계로 아동에게 게임 및 만들기와 예체능, 대화 및 책읽기의 사회·정서적 교류를 의미하며, 모-자녀 간 상호작용으로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에서 사용한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 중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대한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 요인으로 총 10문항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집안일 공유에 대한 1문항을 제외하고 게임 및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함께하는 '놀이적 교류'(3문항, 예: 아이와 함께 퍼즐이나 게임을 한다), 미술, 만들기 및 스포츠 활동을 함께하는 '활동적 교류'(3문항, 예: 아이와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을 한다), 대화 및 책읽기 활동을 함께하는 '언어적 교류'(3문항, 예: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로 재분류하여 총 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하지 않음(1점)'에서 '매일함(4점)'의 4점 척도로 아동의 어머니가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자녀의 교류가 활발함을 의미하며, Cronbach's α는 놀이적 교류 .76, 활동적 교류 .64, 언어적 교류 .65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 21.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토대로 기능적 환경의 하위 요인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모형 검증을 위해 AMOS 21.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증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CFI, NFI,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랩 분석(Bootstrap Analysis)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요인 중 '교사'변인은 낮은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 제외하는 것으로 모형을 수정하였다.

최종 사용 변인들의 요인 값들은 유의도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각 변인의 AVE값은 .742~.969로 .5이상이었으며, CR값은 .850~.992로 .7이상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각 구성개념 간 AVE와 Φ^2 값을 비교한 결과 AVE값이 Φ^2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성개념 간 경로 제약 후 χ^2 값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충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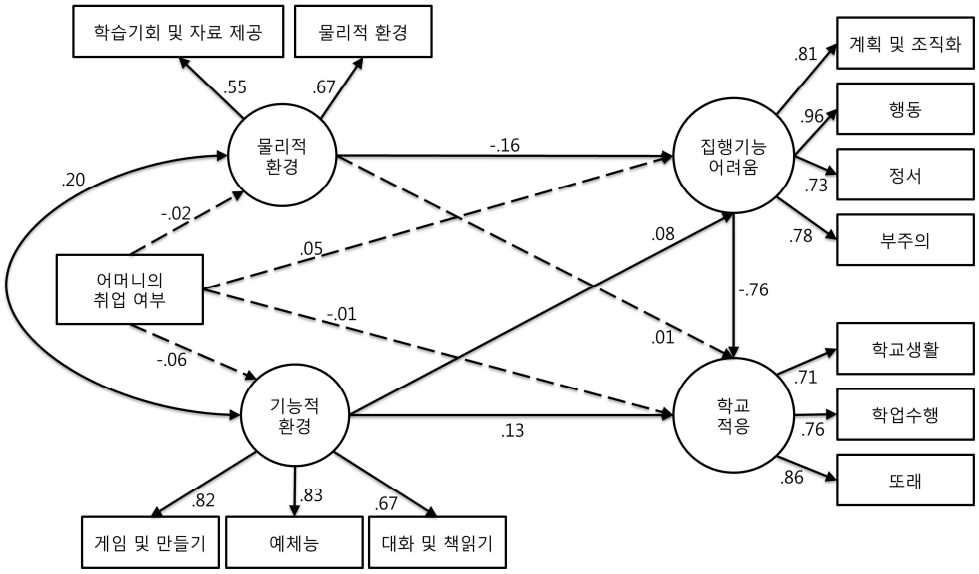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942, TLI=.918, NFI=.933으로 모두 .9를 상회하였고, RMSEA는 .079로 양호한 수준(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으로 나타났으므로, [그림 2]를 최종 연구 모델로 채택하였다.

〈표 1〉 분석모형의 적합도

χ^2	*df*	*CFI*	*TLI*	*NFI*	*RMSEA (LO - HI)*
374.310***	55	.942	.918	.933	.079 (.072-.087)

***p 〈 0.001

먼저,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가정의 물리적(β=-.024, p〉.05), 기능적(β=-.062, p〉.05) 환경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물리적 환경과 기능적 환경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02, p〈.001). 또한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의 집행기능 곤란(β=.048, p〉.05), 학교적응(β=-.008, p〉.05)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정의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으나(β=.008, p〉.05), 집행기능 곤란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β=-.160, p〈.01). 가정의 기능적 환경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β=.076, p〈.05)과 학교적응(β=.126, p〈.001)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가정의 기능적 환경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β=.227, p〈.05)은 간접적 영향력(β=-.058, p〈.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학교에서의 적응을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β=-.757, p〈.001). 또한 본 연구결과의 주요 변인 간 유의 수준은 연구 대상 가구의 월 평균 근로소득을 통제하여도 변하지 않았다.



〔그림 2〕 분석모형

〈표 2〉 경로계수

	B	*S.E*	*β*
모 취업 → 학교 적응	−.014	.044	−.008
모 취업 → 물리적 환경	−.039	.073	−.024
모 취업 → 기능적 환경	−.059	.034	−.062
모 취업 → 집행기능 곤란	.041	.029	.048
물리적 환경 → 학교 적응	.008	.038	.008
물리적 환경 → 집행기능 곤란	−.083**	.029	−.160
물리적 환경 → 집행기능 곤란 → 학교 적응	.126**	−	.121
기능적 환경 → 학교 적응	.227***	.053	.126
기능적 환경 → 집행기능 곤란	.068*	.035	.076
기능적 환경 → 집행기능 곤란 → 학교 적응	−.103*	−	−.058
집행기능 곤란 → 학교 적응	−1.513***	.069	−.757

* $p < 0.05$, ** $p < 0.01$, *** $p < 0.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 가정의 물리적·기능적 환경, 그리고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의 학교적응은 물론 자녀의 개인적 자원이 되는 집행기능 곤란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 아님을 밝힌 연구(간호옥·박완재, 2005; 박인영·유조안, 2015; 정윤미·장영애, 2009; 최옥희·김용미, 2008)와 동일한 맥락의 결과이다. 최근 부모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류의 변화로 인해 어머니의 취업이 보편화됨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특별한 생애 사건이 아닌 일상적 생애 환경으로 자리 잡았다. 즉 단편적인 취업 여부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직업지위, 근무시간, 일-가정 양립 여건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에 주목할 필요성을 추론할 수 있다. 전하람과 임혜정(2016)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학습적 측면의 중요성이 커지는 학령기 중·후반의 아이들에 비해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적은 연구대상의 연령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하람과 임혜정(2016)은 직업지위가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지원의 질적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자녀의 학교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가정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자녀에 대한 시간적, 물리적, 정서적 관여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박인영과 유조안(20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어머니의 취업 여부보다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므로(박인영·유조안, 2015), 부모의 노동시장 진출 여부가 아닌 일-가정 균형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은 그 자체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부가적 사항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의 역동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에게 학습 및 시야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게 호기심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행기능

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송현주, 2011), 집행기능의 발현에는 적절한 환경적 제공이 필요하다(Glaser, 2000)는 선행연구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적절한 학습기회와 자극, 안락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에게 주어진 일을 파악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물리적·정서적 충동을 자제하는 연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라는 사회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직업 지위에 따라 교육적 관여 및 지원이 질적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전하람·임혜정, 2016), 빈곤가정의 경우 불량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으므로(간호옥·박완재, 2005), 실행기능 향상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가족과 개별 아동에게 최소한의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한정된 재원과 근접성을 고려할 때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장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빈곤, 부모의 교육 및 소득 구조 등의 다양한 어려움으로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자 입장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의 기능적 환경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강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집행기능 곤란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줌으로써 간접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가정의 기능적 환경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부모가 자녀와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며 긍정적,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부모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다는 연구결과(이정윤·이경아, 2004; 정윤미·장영애, 2009; 차유림, 2000; 최옥희·김용미, 2008; Tesser et al., 1989)와 같은 일치한다.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와 소통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이루고 체계에 적응하는 방법을 연습하게 되고, 물리적·정서적 지원을 통해 적응력을 높여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시기는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큰 시기이므로 가정을 안전기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감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의 기능적 환경은 집행기능 곤란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에 대한 의존성향이 높을수록 집행기능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황혜련·송현주, 2013)와 같은 맥락이며, 집행기능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송현주, 2011)와 일치한다. 즉 성취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가 높을수록 학습관여가 높아지기 때문에(홍영주·이지연, 2012), 이로 인하여 자녀에게 학습기대가 높고,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가 나타나(위지희·채규만, 2015)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집행기능을 통한 과제수행에 차

이가 나타나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따른 영향력도 다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황혜련·송현주, 2013)에 따라 아동의 개인적 자질 향상을 위해 성인의 역할에 대한 범위의 적정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아동의 사회적 영역 확장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 및 한계에 대한 인식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인식 확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집행기능 곤란은 아동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적응과 집행기능, 집행기능 곤란 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입증한(송현주, 2011; 전숙영, 2018)연구와 일치한다. 특히 스스로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충동을 억제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토대로 현실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과 같은 인지·정서·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집행기능은 학습 및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송현주, 2014; Brock, Rimm-Kaufman, Nathanson, et al., 2009; Meuwissen & Zelazo, 2014). 즉 아동이 자신의 정서 및 행동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하며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학업 수행과 또래 와 관계를 형성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때문에 아동의 집행기능은 장기적으로도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집행기능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것은 학교적응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회화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요한 요소가 될 것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횡단적 관점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성장하며 점차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그만큼 학교가 중요한 생활의 장이 되어간다. 따라서 아동의 학교적응은 그들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는 학교생활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고 아동의 학교적응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본 연구모형 설정 시 탈락된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됨으로 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학교적응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변 환경 중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기능적 환경을 주요 요소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개인이 생활하는 가정환경에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각각의 개념 정의 및 관계성의 설정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다차원적 요소를 고려한 탐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요소에 집중하여 살펴보았으며, 가정 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어머니의 취업 여부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부모권과 노동권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 가족 구성원 간 관계 및 시간사용 패턴은 물론 개인이 인식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가정 내 환경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아동에게 미치는 학교환경 및 정책 등의 가

정 외 요소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아동의 대다수는 초등학교에 입학 전 유아교육기관에서 사전 경험을 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유아기의 기관과 가정환경 경험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연결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인 패널 연구를 활용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으나, 같은 이유로 개념 설정에 제한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 요소로 아동의 학습 공간, 제공 자료의 양과 질적 측면과 기능적 환경 요소로 가족과의 시간 공유 측면을 포함하는 등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패널 표본 자료의 특성 상 중상층 이상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취업모의 직업군이 전문직 관련자에 다소 치우쳐 있으므로(김은설 외, 2016)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가계 계층 및 직업군에 따른 탐색이 필요하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에 기초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수요자와 정책 입안자가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로 저출산으로 인한 부양 인구 및 사회적 재원 조성 능력 감소 등의 신사회화 위험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초등 돌봄 교실 지원 강화 등의 탈가족화 정책, 탄력근무 등의 가족화 정책, 남성 육아휴직 등의 탈가족화 정책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한국여성연구소, 2014).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취업은 가구소득 여부와 관련 없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직/간접적 영향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일부분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따르면 미취업모의 경우 미취학기 자녀 연령에 따라 증가하던 노동시장 참여가 자녀의 초등 저학년 시기에 정체 되었으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퇴직하였다(윤자영, 2016). 이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도 자녀의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시장 이탈은 결국 정책 수요자와 정책 입안자가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도의 부족함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기혼 여성들은 탄력근무 등의 근로시간 조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빠른 등교로 인한 아침 시간의 부족, 숙제 지원 및 행사 증가 등으로 인한 시간적 측면의 어려움(이재희·김근진·엄지원, 2017)을 호소하고 있다. 윤혜미(2005)는 부모가 젊을수록 상대적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학교적응이 높

은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자녀의 사회화는 물론 부모세대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간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과 개인의 직업 성취를 위한 소득 안정, 취업 기회 다양화 등의 노동권 보장 정책들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학습적 측면보다 생활 적응에 중점을 둔 저학년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의 학습지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위하여 주로 인지적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지성애·정대현, 2006). 이는 정책 수혜자가 느끼는 필요성과 정책 입안자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같은 항목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정윤미와 장영애(2009)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체는 자녀의 학교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취업모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라는 단편적인 사항을 포다 폭 넓게 생각하고 이에 따른 부가적인 부분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개별 가정과 긴밀한 관계 맺음을 통해 대상자를 우선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체계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가정에서 제공되는 학습 기회 제공 및 안락한 물리적 환경, 부모와의 상호작용 등 구성원 간 정서적 교류에 기반을 둔 기능적 환경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학교는 한정된 근접성을 갖는 국가를 대신하여 아동이 한 사람의 독립된 개체로서 전인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학부모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학부모들은 일방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통신문, 카톡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 3. 24.). 이는 소통을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디지털 방식을 취했다 할지라도 수신자에 대한 배려 없는 일방적 전달은 통보로 여겨지게 되고 결국 서로에 대한 불신을 쌓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형태적·내용적 측면에서 서로에 대한 교류를 고민한다면 가정과 학교는 보다 긴밀한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가정 내·외 지원을 보다 세심하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 목표지점 설정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성인은 아동에게 당면한 과제인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 등에 자원을 투자하려 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아동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가장 큰 변인은 아동의 집행기능이었다는 점에서 아동에 대한 지원 과제를 당면한 단편적 문제로 초점을 맞추기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아동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학교적응은 아동의 현 시점에 주어진 사회적 체계에 잘 적응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선별적 기준이 된다면, 집행기능은 아동의 중

요한 변수이며 향후 발달 예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을 둘러싼 성인은 당면한 과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발달을 지원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간호옥·박완재(2005). 학교부적응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가정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2(3), 5-23.

고정곤·최태식(2003). 초등학교 교육의 이해. 서울: 양서원.

고혜진(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능력과의 관계.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진(2008).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입학초기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39(1), 181-210.

김소윤·최성우(2015). 초등 고학년 자녀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어머니의 촉진 경험 탐색 : 고학력 어머니를 중심으로. 평생교육·HRD연구, 11(3), 67-95.

김수정·곽금주(2010). 초등 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3(2), 19-37.

김수정·곽금주(2012).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인 간 관련성에서 차이: 양육효능감, 자아개념 그리고 친사회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 19(3), 85-105.

김은설·배윤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혜란(2006). 이혼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윤석(1996). 초등학교 도시전입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인영·유조안(2015). 가구소득 및 모의 취업 변인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적 관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3), 157-186.

방소영·황혜정(2013). 초등학교 학교준비도에 대한 유아기자녀 부모, 학령기자녀 부모와 유아교사, 초등교사의 인식차이. 아동학회지, 34(2), 139-160.

성민선·이상오·정무성·정은(1998). 학교부적응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실천모델연구. 학교사회복지, 1, 179-223.

송현주(2011). 초등학생의 집행기능과 학교 적응. 한국심리치료학회지, 3(2), 31-39.

송현주(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1), 121-137.

연합뉴스(2019. 3. 24.) [SNS 세상] 카톡에 '가통'까지… 불나는 학기초 학부모 휴대전화.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3044900011?input=1195m에서 2019년 3월 24일 인출함.

위지희·채규만(2015). 양육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4), 945-970.

윤자영(2016). 초등학교 교육지원활동과 모의 취업. 여성경제연구, 13(2), 183-212.

윤혜미(2005).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3), 133-164.

이재희·김근진·엄지원(2017).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강영숙(2012, 115-137.). ADHD의 특성, 정의의 변화 및 생활에의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7(1), 115-137.

이정윤·이경아(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전숙영(2018). 초등학교 1학년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행기능곤란의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3(3), 41-54.

전은옥·최나야(2015). 가정환경 자극과 유아의 학교준비도의 관계: 기관적응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94, 93-119.

전하람·임혜정(2016).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직업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6(3), 141-169.

정윤미·장영애(2009).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의 영향력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1), 91-102.

정현희(2003). 중학교 진학 후의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1(2), 36-46.

주동범(2006).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자녀의 교육포부수준과의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16(2), 141-161.

지성애·정대현(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5.

차유림(2000).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옥희·김용미(2008). 부모 및 가족환경 변인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의 차이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2(1), 79-109.

최옥희·김용미·김영호(2009). 생태학적 변인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학습수행 성취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2(4), 133-160.

최진희(2000).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괴롭힘이 학교적응과 우정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분석. 아동연구, 14(2), 59-89.

한신애·문수백(2011).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355-376.

홍영주·이지연(201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초등학생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와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1(2), 325-342.

황혜련·송현주(2013). 아동기 실행기능과 부모양육태도. 한국재활심리학회, 20(2), 149-167.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 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 ment*, *69*(1), 140-153.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8.tb06139.x

Barkley, R. A. (1997). Behavioral inhibition, sustained attention, and executive functions: constructing a unifying theory of ADHD. *Psychological Bulletin*, *121*(1), 65-94. http://dx.doi.org/10.1037/0033-2909.121.1.65

Barkley, R. A., & Lombroso, P. J. (2000). Genetics of childhood disorders: XVII. ADHD, Part 1: The executive functions and ADH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9*(8), 1064-1068. https://doi.org/10.1097/00004583-200008000-00025

Brock, L. L., Rimm-Kaufman, S. E., Nathanson, L., & Grimm, K. J. (2009). The contributions of 'hot' and 'cool' executive function to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related behaviors, and engagement in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4*(3), 337-349. doi:10.1016/j.ecresq.2009.06.001

Brody, G. H., Murry, V. M., Kim, S., & Brown, A. C. (2002). Longitudinal pathw ays to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African American children living in rural single-parent households. *Child Development*, *73*(5), 1505-1516. https://doi.org/10.1111/1467-8624.00486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 University of arkansas for medical sciences.

Elliot, D. S. (1972). *Delinquency and the school.* Washington D. C.: Youth Devel opment and Delinquency Prevention Adminstration.

Espy, K. A., McDiarmid, M. M., Cwik, M. F., Stalets, M. M., Hamby, A., & Senn, T. E. (2004). The contribution of executive functions to emergent mathem atic skills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26*(1), 4 65-486. https://doi.org/10.1207/s15326942dn2601_6

Gathercole, S. E., Brown, L., & Pickering, S. J. (2003). Working memory assessm ents at school entry as longitudinal predictors of national curriculum attai nment levels. *Educational and Child Psychology*, *20*(3), 109-122.

Glaser, D. (2000).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 brain—a review.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1*(1), 97-116.

Glenwick, D. S., & Jason, L. A. (1993). *Promoting health and mental health i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Springer Series on Behavior Therapy and Behavioral Medicine*, Volume 27. Springer Publishing Company, 536 Broadway, New York, NY 10012-3955.

Graziano, P. A., Reavis, R. D., Keane, S. P., & Calkins, S. D. (2007).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s early academic success. *Journal of Schoo l Psychology*, *45*(1), 3-19. https://doi.org/10.1016/j.jsp.2006.09.002

Ladd, G. W., & Troop-Gordon, W. (2003). The role of chronic peer difficulties i 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Child Development*, *74*(5), 1344-1367. https://doi.org/10.1111/1467-8624.00611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 nt*, *67*(3), 1103-1118.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6.tb01785.x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7). Classroom peer acce ptance, friendship, and victimization: Destinct relation systems that contri bute uniquely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8*(6), 1181-1197.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7.tb01993.x

Losoya, S., Eisenberg, N., & Fabes, R. A. (1998). Developmental issues in the study of cop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2*(2), 287-313.

Meuwissen, A. S., & Zelazo, P. D. (2014). Hot and cool executive function: Foun dations for learning and health development. *Zero to Three*, *35*(2), 18-23.

Nigg, J. T., Hinshaw, S. P., Carte, E. T., & Treuting, J. J. (1998). Neuropsychological correlates of childhood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Explainable by comorbid disruptive behavior or reading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3), 468-480. http://dx.doi.org/10.1037/0021-843X.107.3.468

Pennington, B. F. (1997). *Dimensions of executive functions in normal and abno*

rmal development. In N. A. Krasnegor, G. R. Lyon, & P. S. Goldman-Raki c(Eds.), Development of the prefronal cortex: Evolution, neurobiology, and behavior(pp, 265-281). Baltimore: Paul H. Brookes.

Stipek, D. J., Feiler, R., Byler, P., Ryan, R., Milburn, S., & Salmon, J. M. (1998). Good beginnings: What difference does the program make in preparing y oung children for schoo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9*(1), 41-66. https://doi.org/10.1016/S0193-3973(99)80027-6

Stright, A. D., Gallagher, K. C., & Kelley, K. (2008). Infant temperament modera tes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in early childhood and children' s adjustment in first grade. *Child Development*, *79*(1), 186-200. https://do i.org/10.1111/j.1467-8624.2007.01119.x

Tesser, A., Forehand, R., Brody, G., & Long, N. (1989). Conflict: The role of calm and angry parent-child discussion in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8*(3), 317-330. https://doi.org/10.1521/ jscp.1989.8.3.317

Verna, M. A., & Campbell, J. R.(2000). Differential effects of family processes and SES on academic self-concepts and achievement of gifted Asian American and gifted caucasion high school students : The effects of home environment do academic achievement. http://www.eric.ed.gov에서 2019.03.29에 추출.

Vieno, A., Santinello, M., Pastore, M., & Perkins, D. D. (2007). Social support, sense of community in school, and self-efficacy as resources during early adolescence: an integrative model.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9*(1-2), 177-190. https://doi.org/10.1007/s10464-007-9095-2

Williamson, D. E. (2003). Readiness for school: A study of parent, teacher, and preschool provider perspectives.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 논문접수 4월 5일 / 수정본 접수 5월 22일 / 게재 승인 6월 6일

• 교신저자: 전은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간강사, juneunock@naver.com

Abstract

Exploring variable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in first grade elementary students: Focused on mother's employment, home environment,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Yi Yejin and Jun Eunoc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ther's employment, physical and functional environment of family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on school adjustment in the first grade. Data from 8th survey in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were used. For this purpose,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created and examined using AMOS 21.0.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employment did not have direct or indirect effects on thei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Second, the physical environment of family only affected school adjustment indirectly through the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of the children. Third, the functional environment of family had direct or indirect effect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the children. Fourth, the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of the children had a strong effect on school adjustment. As shown above, home environment factors affect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that children in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needs support based on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for school adjustment.

Keyword: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school adjustment, mother's employment, home environment,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